

챗GPT 디지털 글쓰기

이광춘, 신종화

2023년 09월 18일

목차

1	글쓰기	1
1.1	문서로 보는 민주주의	2
1.2	글쓰기 역사	3
1.2.1	문서 저작 패러다임	5
1.2.2	문서 도구 역사	6
I	실무	9
2	책과 편집 용어	11
2.1	PDF에서 표 추출	12
2.2	책 외부 (I) 명칭	13
2.3	책 외부 (II) 명칭	15
3	책의 내부 순서 및 명칭	19
	참고문헌	21

제 1 장

글쓰기

글쓰기는 언어와 문자(Writing System) 언어와 문자 체계를 활용해 생각, 지식, 감정을 표현하는 창의적 과정이다. 글쓰기는 시각적 형태로 기록되어 말하기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과거 물리적 매체에 담겨 후대에 전달됨에 따라 일부 손상과 유실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디지털 문서 형태로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글쓰기는 단순한 문장 구성을 넘어서 사회, 문화, 과학,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 문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회적 규칙과 약속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지식을 문서화하여 현대 문명 발전을 촉진하고, 글쓰기는 교육과 학문에서 지식과 정보의 전달 및 공유 수단으로 세대 간 지식 전승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창의적 글쓰기가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고 심리와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도 글쓰기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넘어서, 글쓰기 목적과 형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 전달, 감정 표현, 이야기 전달 등 기존 목적을 넘어서, 글쓰기는 수학과 과학 저작을 위한 \LaTeX / \LaTeX 같은 수식 표현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 최근에 기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글쓰기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교육용 파이썬이나 통계와 데이터 과학, 그리고 과학기술 저작을 위한 R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글쓰기의 새로운 영역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현대 글쓰기의 특징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을 꼽을 수 있고 그 중심에 인터넷과 웹의 출현이 있다. 인터넷이 전 세계 컴퓨터를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켰다면, 웹은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정보 공간을 열었다. 인터넷과 웹은 글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저자와 독자 사이 시공간적 제약을 크게 줄여, 다양한 문화와 언어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보와 지식의 융합을 가져왔으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신속한 글쓰기 측면도 크게 부각됐다.

과거 글쓰기 매체가 주로 종이에 기반했다면, 웹의 출현은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을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독자가 저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환경도 제공함에 따라 글쓰기는 단방향적인 정보 전달에서 양방향적인 대화로 빠르게 진화했다. 텍스트가 종이 매체에서 주류를 형성했다면, 웹이 바꾼 글쓰기 생산과 소비환경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그래프, 다이어그램, 표, 코드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여 글을 작성하는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졌다.

과거 글쓰기가 주로 물리적 매체, 즉 종지와 펜으로 대표되는 인쇄기술에 크게 의존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디지털 글쓰기 등장으로 이러한 제약과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 디지털 글쓰기는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하고 수정하고 공동저작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글쓰기 발전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코딩은 이제 기계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로 간주되고 있다. 글쓰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 고도화된 현대 사회의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 없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과 그것을 지탱하는 기술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글쓰기는 현대 사회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1 문서로 보는 민주주의

글쓰기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부상이 현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열고 있다. 따라서,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사회에서 글쓰기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삼권분립 원리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한다. 이 원리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핵심 원칙으로,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삼권분립 원리에서 글쓰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권은 법률을 '작성'하고, 행정권은 법률을 '실행'하며, 사법권은 법률을 '해석'한다. 이 모든 과정은 문서와 글쓰기에 근간을 두고 있어, 글쓰기는 삼권분립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삼권분립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복잡한 법률 문서의 작성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사법 분야에서는 판례 분석과 법률 문서 해석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여, 판사와 변호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제공하고, 코딩은 기계와 상호 커뮤니케이션 촉진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부상은 삼권분립 체계에서 각 분야의 작동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항상 기술 발전은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데이터에 편향이 있을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

1.2 글쓰기 역사

점토판과 썰기를 이용한 문자 작성에서 시작하여 중세시대에는 동양에서는 붓과 머루를, 서양에서는 잉크와 새깃털펜을 사용해 저작을 했다. 타자기의 발명은 개인 저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전동타자기의 등장은 문서 작성의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출판 과정을 신속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용 에니악(ENIAC) 컴퓨터가 민간에 보급되어 IBM이 1964년에 워드 프로세서를, 1969년에 저장 장치를 시장에 출시했다. 이로써 기계식 저작 방식에서 디지털 저작 방식으로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전후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1.0, 워드 퍼펙트, 아래한글과 같은 워지웍(WYSIWYG) 방식이 일반인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면, 문서를 구조적으로 작성하여 컴파



그림 1.1: 글쓰기와 삼권분립

일하는 위지윅(WYSIWYM) 방식의 \LaTeX / \LTeX 이 비슷한 시기에 과학기술 전문가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갔다.



그림 1.2: 글쓰기 저작도구 진화과정

1.2.1 문서 저작 패러다임

아래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는 위지위그(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방식은 화면에 보이는 서식이 입혀진 텍스트가 최종 출력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직관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타자기나 컴파일을 필요로 하는 다른 문서 저작 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보이며 문서 저작의 주류 소프트웨어로 자리잡았다.

반면, 위지윅(WYSIWYM: **What You See Is What You Mean**)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LaTeX (레이텍)이다. 이 방식은 구조화된 형태로 문서를 작성한 후 컴파일을 통해 출판 가능한 PDF 파일을 생성한다. \LaTeX 의 주요 장점은 수식, 그래프, 표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미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적 프로그래밍(literate programming)” 패러다임을 통해 텍스트와 코드를 함께 담을 수 있고 위지위그 방식 워드프로세서 보다 문서가 복잡할수록 진가를 보여준다.

최근 문서저작 도구의 패러다임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위지위그(WYSIWYG)와 과학기술 전문가를 위한 위지윅(WYSIWYM)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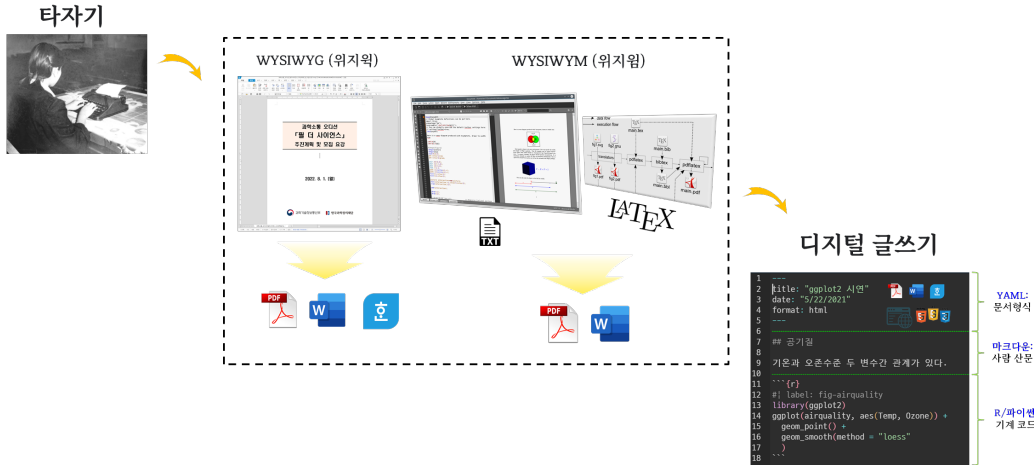


그림 1.3: 문서 저작 패러다임

두 가지 주요 패러다임으로 문서저작 도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기술이 위지윅 패러다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워드프로세서부터 엑셀,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그리고 멀티미디어 저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위지윌 패러다임도 마크다운, 팬독(pandoc), R/Python, $\text{L}^{\text{A}}\text{T}_{\text{E}}\text{X}$ 엔진 등 단위기술 발전과 함께 생성형 AI기술이 적극 반영된 RStudio, 주피터, VS코드와 같은 통합개발환경(IDE)의 발전을 통해 두 패러다임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문서저작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현성, 추적성, 협업, 코딩, 버전 제어, 자동화, 생산성이 중요한 저작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서저작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학적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1.2.2 문서 도구 역사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텍스트와 기계와 의사소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텍스트는 문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문서 작성과 코드 통합은 오래 전부터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 과학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그 결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도구도 개발되었다.

도널드 크누쓰 교수가 1978년 수식이 포함된 과학문서 작성에 특화되어 $\text{T}_{\text{E}}\text{X}$ 를 개발하였고, 1984년 문학적 프로그래밍 개념을 제안하면서 텍스트와 코드를 섞어 문서와 프

로그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선보였다. 1985년에 레슬리 램포트가 $\text{T}_{\text{E}}\text{X}$ 을 기반으로 $\text{L}_{\text{A}}\text{T}_{\text{E}}\text{X}$ 을 개발하여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서저작 도구로 자리잡았다. [1, 2]

1988년에 울프람 박사가 매쓰매티카 노트북(Mathematica Notebooks)을 개발하여 수학과 과학 연구를 위한 고급 작업 환경을 제공했지만 한동안 특별한 도구나 개념의 진전은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1년에 페르난도 페레즈가 파이썬 대화하여 IPython을 개발했고, 2003년에 이맥스(Emacs) 텍스트 편집기에서 동작하는 작업 관리 및 문서 작성 도구인 이맥스 Org-mode를 개발했다. 2004년에 존 그루버가 웹 문서를 쉽게 작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경량 마크업 언어 마크다운(Markdown)을 공개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팬독(Pandoc) 개발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마크업 언어 간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페르난도 페레즈는 2011년 파이썬 기반 iPython Notebook을 개발했고, 곧 이어 2012년 R 기반 knitr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2014년에 페르난도 페레즈가 다시 한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주피터 프로젝트(Project Jupyter)를 주도하고 있으며, 2020년 RStudio로 잘 알려진 포짓(Posit) J.J. 알레이 대표가 과학기술 문서 작성과 데이터 과학에 특화된 쿼토(Quarto)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연도	도구	개발자
1978	TeX	Donald Knuth
1984	Literate Programming	Donald Knuth
1988	Mathematica Notebooks	Stephen Wolfram
2001	IPython	Fernando Perez
2003	Emacs org-mode	Carsten Dominik
2004	Markdown	John Gruber
2005	Sage Notebook	William Stein
2006	Pandoc	John MacFarlane
2009	GitHub Flavored Markdown	Tom Preston-Werner
2011	iPython Notebook	Fernando Perez
2012	knitr	Yihui Xie
2014	Project Jupyter	Fernando Perez
2020	Quarto	J.J. Allaire

제 I 편

실무

제 2 장

책과 편집 용어

국가기술표준원 (2009-12-28), “책의 명칭 및 편집 일반 용어”, KS X 0003 내용을 참조하여 책에 대한 한국어 표준용어 사전을 이해한다. [3]

책 이해하기: 용어

책의 명칭과 편집 일반용어가 필요한 곳은 일반 책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 교과서, 사전, 리플릿, 문서, 인쇄 광고물 등 종이 출판물과 웹북, 웹진, 모바일 콘텐츠 등 전자적 표기에 널리 쓰이는 모든 표현 매체를 아우른다.

책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

- 책의 외부 명칭(1): 책의 명칭은 출판, 인쇄, 편집의 여러 용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으로서 표지 등 장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 책의 외부 명칭(2): 책의 표지를 펼치면 책의 제목, 저자명, 출판사명과 더불어 책 속의 면지, 띠지, 책날개 등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책의 외부 명칭(2)에서 다룬다.
- 책의 내부 명칭 : 책의 내용에 관계되는 사항들의 명칭이다. 본문 편집 순서에 따라 머릿그림, 머리말, 추천사, 차례, 본문, 부록 등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 본문 편집 판면의 명칭(1): 제목이나 사진 등이 들어가는 본문의 내용을 편집할 때 알아야 할 명칭들이다. 큰제목, 중간 제목, 캡션, 단간 등을 담고 있다.
- 본문 편집 판면의 명칭(2): 본문의 내용을 편집할 때 알아야 할 명칭들이다. 판면의 편집에 필요한 면주, 쪽번호, 행길이, 행간, 여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편집 일반 용어 : 책을 편집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와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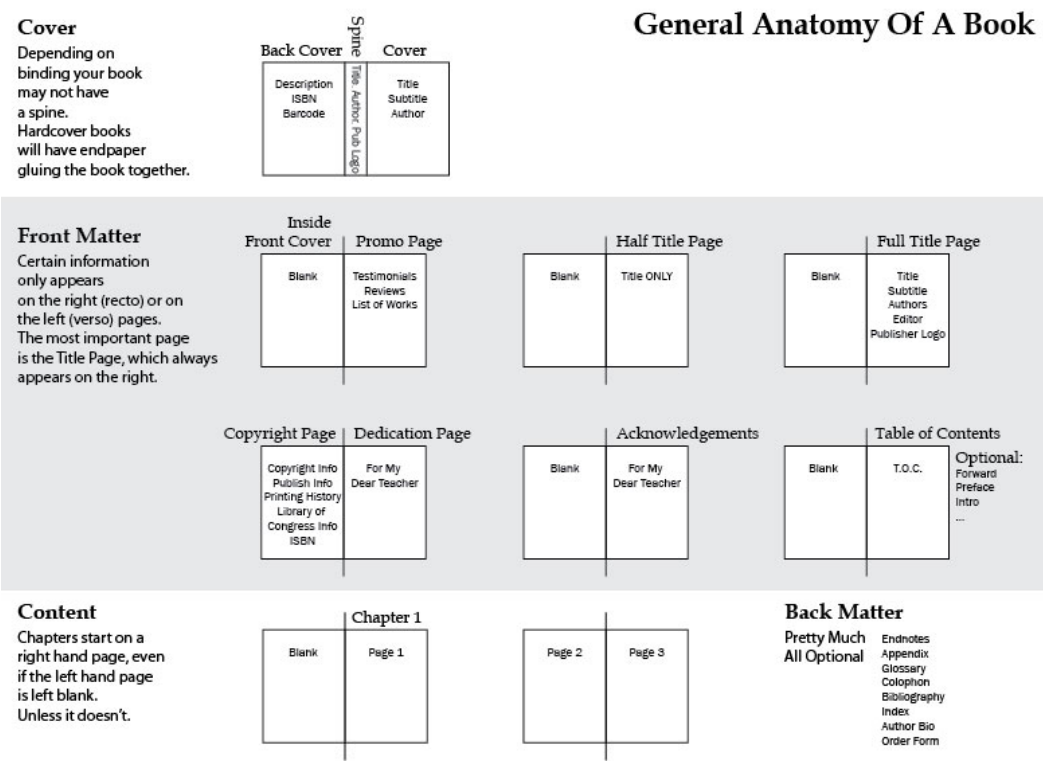


그림 2.1: 책 해부도

2.1 PDF 에서 표 추출

PDF에서 바로 표를 추출할 경우 기계판독 가능한 표이기는 하지만 형태가 뭉개져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PDF 파일으로 워드로 변환시킨 후에 워드에서 표를 추출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워드 파일에서 표\(table\) 추출](#) 하는 방식을 참고한다.

PDF를 워드파일로 변경한 후에 officer 패키지의 도움으로 테이블을 추출한다. 그리고 나서, 표를 추출한다.

```

library(tidyverse)
library(officer)
library(reactable)

book_docx <- officer::read_docx("data/KSX0003_20091228.docx")
book_content <- docx_summary(book_docx) %>% as_tibble()

# book_content

table_cells <- book_content %>%
  filter(content_type %in% "table cell") %>%
  as_tibble()

cover_tbl <- table_cells %>%
  filter(doc_index == 89) %>%
  select(text, row_id, cell_id) %>%
  pivot_wider(names_from = cell_id, values_from = text) %>%
  select(-row_id)

cover_first_tbl <- cover_tbl %>%
  set_names(cover_tbl %>% slice(1)) %>%
  filter(row_number() != 1) %>%
  select(1,2,4,3)

```

2.2 책 외부 (I) 명칭

책 외부(I)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library(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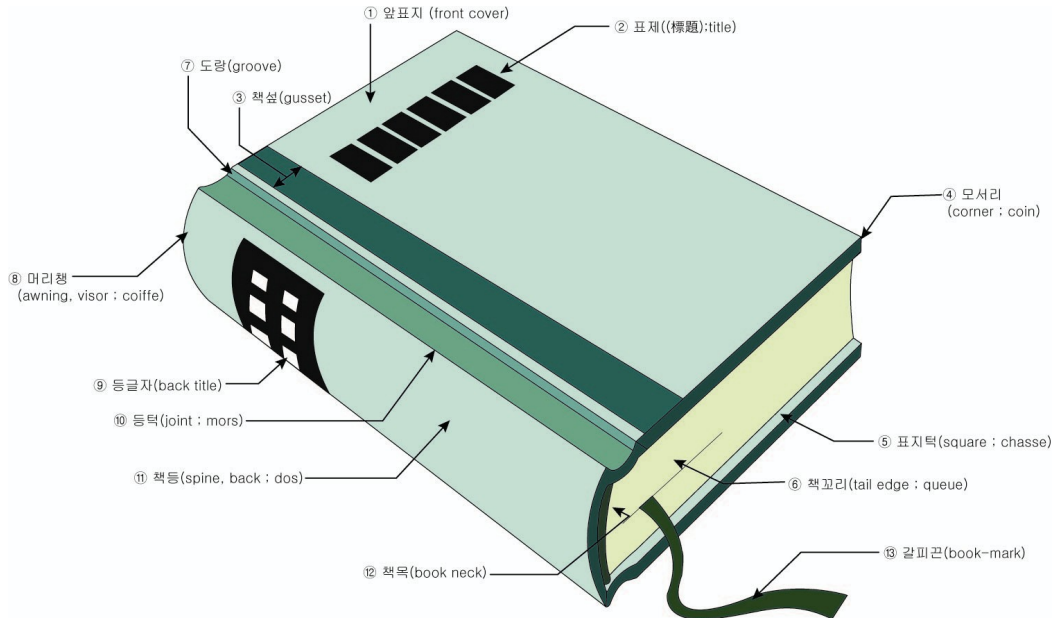
cover_first_tbl |>

```

```
gt() |>
gt_theme_hangul()
```

순	용어	대응 영어	용어 정의
1	앞표지	front cover	책의 맨 겉장. 속장을 보호하기 위해 책 바깥쪽 앞면
2	표제	title	책의 본문 전체 내용을 압축, 상징적으로 앞표지 등에
3	책섀	gusset	책의 등쪽 제본 재료를 앞표지까지 연결하여 표지를
4	모서리	corner	앞표지의 상하 귀퉁이. 양장본에서는 천이나 가죽을
5	표지턱	square	책 본문 속장과 표지 앞마구리 및 위·아래쪽에 튀어
6	책꼬리	tail edge	제본된 책의 맨 아래 밑쪽의 마구리 부분.
7	도랑	groove	양장본의 두꺼운 앞뒤 표지와 책등의 경계에 도랑
8	머리챙	awning/visor	양장본의 책등쪽 위와 아래의 튀어나온 부분. 책의 머
9	등글자	back title	책등이나뒷표지,케이스의등쪽에넣는문자. 표제, 저자
10	등턱	joint	양장 제본에서, 책 표지의 도랑과 책등 모서리의 튀어
11	책등	spine/back	책 앞쪽 마구리의 반대 뒤쪽 부분. 양장본에서는 등글
12	책목	book neck	책의 본문 속장과 등쪽 위·아래 양 끝의 접속 부위.
13	갈피끈	book-mark/ tassel/ ribbon/spin	책장 속에 끼워 넣은 가는 끈으로 읽던 곳이나 필요한

워드 파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식은 워드 파일 압축을 풀면된다. 그렇게 하기 위 해서 KSX0003_20091228.docx 파일명을 KSX0003_20091228.zip으로 바꾼 후에 압축을 풀어 준다. 그러면 word/media 디렉토리에 이미지가 저장된다.



2.3 책 외부 (II) 명칭

책 외부 명칭(II)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over_ii_tbl <- table_cells %>%
  filter(doc_index == 116) %>%
  select(text, row_id, cell_id) %>%
  pivot_wider(names_from = cell_id, values_from = text) %>%
  select(-row_id)

cover_second_tbl <- cover_ii_tbl %>%
  set_names(cover_tbl %>% slice(1)) %>%
  filter(row_number() != 1) %>%
  select(1,2,4,3)

cover_second_tbl %>%
  reactable::reactable(
    defaultColDef = colDef(
```

```

header = function(value) gsub(".", " ", value, fixed = TRUE),
cell = function(value) format(value, nsmall = 1),
align = "center",
minWidth = 70,
headerStyle = list(background = "#f7f7f8")
),
columns = list(
  순 = colDef(minWidth = 40), # 50% width, 200px minimum
  `용 어` = colDef(minWidth = 100), # 25% width, 100px minimum
  `대응 영어` = colDef(minWidth = 150), # 25% width, 100px minimum
  `용어 정의` = colDef(minWidth = 500) # 25% width, 100px minimum
),
bordered = TRUE,
highlight = TRUE,
filterable = TRU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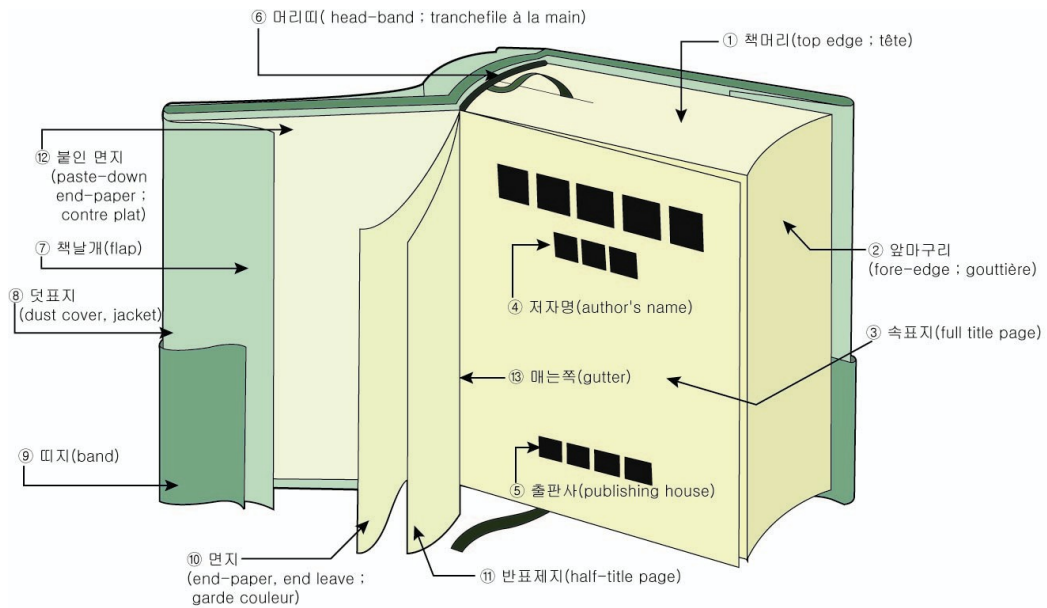
```

순	용 어	대응 영어	용어 정의
1	책머리	top edge	책의 속장의 위쪽이나 펼친 본문 판면의
2	앞마구리	fore-edge	제본된 책의 속장 앞쪽의 재단 부분. 책등의 반대:배·라고도 함.
3	속표지	full title page	책의 본문 바로 앞, 면지·반표제지 다음에 넣는 표하게 표제, 편저자, 출판사 등을 표
4	저자명	author's name	책을 저술한 사람으로서 저작권의 소
5	출판사	publishing house	책·잡지등간행물을편집·제작·발행한
6	머리띠	head-band	양장본의 등쪽 위와 아래 끝에 붙인 천으로 책등: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 일명‘꽃천’·C
7	책날개	flap	책 표지 바깥에 씌운 덧표지 앞뒤를 안쪽으로 접C요약문이나 저자의 사진, 약력 등을 넣
8	덧표지	dust- cover/jacket	양장본의 앞·뒤 표지 위에 덧씌운 종이. 표제, 저ISBN 등을 인쇄하며 표지를 보호하는
9	띠지	band/book band	책의 덧표지나 앞표지 아래쪽에 5~10cm 정도의:종이. 책의 내용을 압축한 선전 문구나 주요 차례
10	면지	end-paper	표지와 본문 속장을 결속시키기 위해 앞뒤의 표:이. 본문 용지보다 좀 두터운 색지나 그림, 사진 등함.

1-10 of 13 rows

Previous **1** 2 Next

워드 파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식은 워드 파일 압축을 풀면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KSX0003_20091228.docx 파일명을 KSX0003_20091228.zip으로 바꾼 후에 압축을 풀어준다. 그러면 word/media 디렉토리에 이미지가 저장된다.



제 3 장

책의 내부 순서 및 명칭

책의 내부 순서 및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ontent_144_tbl <- table_cells %>%  
  filter(doc_index == 144) %>%  
  select(text, row_id, cell_id) %>%  
  pivot_wider(names_from = cell_id, values_from = text) %>%  
  select(-row_id)  
  
content_147_tbl <- table_cells %>%  
  filter(doc_index == 147) %>%  
  select(text, row_id, cell_id) %>%  
  pivot_wider(names_from = cell_id, values_from = text) %>%  
  select(-row_id)  
  
content_tbl <- bind_rows(content_144_tbl, content_147_tbl)  
  
content_tbl <- content_tbl %>%  
  set_names(cover_tbl %>% slice(1)) %>%  
  filter(row_number() != 1) %>%
```

```
select(1,2,4,3)

content_tbl |>
  gt() |>
  gt_theme_hangul()
```

순	용 어	대응 영어	용어 정의
1	반표제지	half-title page	책의제호만(편저자,출판사등넣지않음) 속표지 앞에
2	머리그림	frontispiece	책의 앞머리 반표제 다음에 본문과 관계된 사진이나
3	속표지	full title page	책의 본문 바로 앞, 면지·반표제지 다음에 넣는 표지
4	판권지	imprint page/copyright page	표제, 편저자, 발행자, 발행사, 발행 연월일 등 출판 사
5	바치는 글	dedication	저자가 스승이나 선배, 친지에게 자신의 저서를 헌정
6	고침표	errata/corrigenda	인쇄가 끝난 뒤에 발견된 오자나 오식을 모은 정정
7	머리말	preface	책의 편저자 자신이 책의 앞 부분에 스스로 써 넣은
8	추천사	foreword	저자의 스승이나 선배 등이 책의 내용을 평가하며
9	감사글	acknowledgement	저자가 책의 저술 중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 등
10	일러두기	explanatory notes	책 내용 구성과 편집에 활용된 약호나 부호 등의 해
11	차례	Contents	책이나 잡지 등에서, 내용의 대소 단원의 제목을 뽑
12	그림 차례	illustrations	책의 본문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삽입해 놓은
13	약어표	abbreviations	단어를 축약한 약어들을 가나다 순이나 알파벳 순으
14	중간 표제지	divisional title page	본문 가운데 ‘부(部)·편(篇)·장(章)의 제목’ 만의 하
15	본문	text	도서, 잡지, 신문이나 문서 가운데 주체가 되는 문장
16	주	notes	책의 맨 끝이나 해당 페이지 하단 또는 판면 좌우 여
17	후기	afterword/ postscript	책의 끝 쪽에 저작자의 집필 의도나 출판 경위 등을
18	부록	appendix/ supplement	본문과 관련 있는 보충 내용을 묶어 권말에 따로 넣
19	용어풀이	glossary	책 내용과 관련된 특수 용어나 전문 용어를 따로 모
20	참고문헌	bibliography	책의 본문에 참고·인용한 책이나 논문, 잡지 등의 문
21	찾아보기	index	본문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지명, 용어 등을

참고문헌

- [1] Donald E. Knuth. “Literate Programming”. *in Comput. J.*: 27.2 (**may** 1984), **pages** 97–111. ISSN: 0010–4620. DOI: [10.1093/comjnl/27.2.97](https://doi.org/10.1093/comjnl/27.2.97). URL: <https://doi.org/10.1093/comjnl/27.2.97>.
- [2] Michael Spivak. *The Joy of TeX {}, a Gourmet Guide to Typesetting with the AmSTeX {} Macro Package: A Gourmet Guide to Typesetting with the AMS-TEX Macro Package*. American Mathematical Soc., 1990.
- [3] 국가기술표준원. *책의 명칭 및 편집 일반 용어*. KS X 0003. **december** 2009. URL: <https://www.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View.do?menuId=919&topMenuId=502&upperMenuId=503&ksNo=KSX0003&tmpKsNo=KSX0003&reformNo=03>.

찾아보기

L

\LaTeX , 7

P

pandoc, 7

ㅁ

마크다운, 7

문학적 프로그래밍, 7